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5월

선교편지 제 89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년만에 처음으로 겪는 '가뭄'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지난 8년 6개월 동안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가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도를 오르 내리는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 중에도, 소나기가 종종 세차게 쏟아져서 해갈과 더불어 더위를 식혀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몇 달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모양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생활과 밀접한 '전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심한 가뭄으로 강물의 수위가 현저히 떨어져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전기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 ~ 4 시간은 기본이고, 지난 두 주간은 하루에 8시간을 전기가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전, 오후 각각 4시간을 전기가 없이 무더위 가운데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일반 가정도 여러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소규모로 사업장을 꾸려 나가는 많은 영세 주민들은 불편함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더욱 더 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정전이 되면, 평소에도 어두웠던 도시가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전기 펌프로 물을 끌어 올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은 곧 '물' 사용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 샤워, 화장실 사용등이 정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용도별로 충분한 물을 준비해 놓고, 양초와 성냥도 어두움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마치 캠핑을 온 것처럼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하루 하루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도 이곳의 주산업인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무와 농산물은 바싹 타 들어가고, 포장미 안된 길에서는 흙 먼지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제가 겪는 것과 같은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삶이 위협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지역의 농민들은 '가뭄과 생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유혈 시위가 있을 정도로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배하는 쌀, 채소, 과일등과 같은 각종 농산물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농민 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 생업인 지역에 위치한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즈음 주일 예배후 친교 시간에 나누는 점심 식사를 위하여 그전보다 더 많은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아직 참석하지 않지만, 친교 시간에 맞추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로 오는 주민과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심방을 갈때마다 '구제미'로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잔뜩 흐린 날씨 입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욘 28:23~26)

🕯 디고스 예일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띠구만'과 인접한 '익핏' 지역은 서로 유사한 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바나나 농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가 아니고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 시켜 오늘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집이 없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의 노동과 주거 규칙을 따르는 조건으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작은 면적의 토지를 시세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 주고, 인근 바나나 농장에서 노동을 하



게 하는 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디고스 내의 다른 지역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고, 사고도 많은 지역입니다. 익핏 지역에는 이렇게 형성된 마을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마을 회관과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과 성냥곽처럼 대충 만들어진 주거지로 된 마을이 두 곳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걸어서 세 마을을 왕래하기가 쉽지 않은 거리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걸어서 익핏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마띠, 띠구만 지역에 이어서 '익핏'을 선교지로 품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선교입니다. 고등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룹내에 있는 졸업생 중에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으로 진학하게 하여 신앙 안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의 몇몇 학생들은 가깝지않은 거리에 있는 디고스 예일 교회에 매주 트라이시클을 타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금년 초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학교를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찬양을 하고, 게임도 하고, 간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10여명의 적은 인원 이지만, 감사하게도 마침내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하여 기도 중입니다.



약 4년여 전에 마디 고등학교 교장의 소개로 익핏 고등학교를 방문한 것이 시작이 되어, 고등학교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에 축제와 뉴스가 되었던 '단기 선교'로 마음의 문을 열게하고, '장학 사역'등으로 구체적으로 주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 오늘과 같은 선교의 기반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한 장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주민들,.... 비록 서로 다른 대상에게, 다른 날에,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4년여 전과 비교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금년 초부터 익핏 지역에도 '성전'을 허락해 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초등학교, 또한 마을에 흩어져서 다양하게 복음을 접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익핏 지역의 모든 주민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익핏 지역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세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익핏이기 때문에, 교회 위치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까지 선택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향후 '익핏 교회'를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을실 줄 믿고, 주님의 뜻과 합한 영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쁨과 기대 가운데 동네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익핏 지역에도 믿는 자의 무리들이 크게 증가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합 2:20)

🕯️ 이곳에서는 우리의 문화와는 달리 누구에게 '무엇을 권한다.'라는 것이 종종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예배후 친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더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불필요한 친절입니다. 배가 고프면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옆에서 더 먹으라고 권하면 별로 자연스러운 대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선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인들의 성품은 대체로 외적으로 매우 온유하고, 친절합니다. 따라서 처음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사소한 일로도 마치 오랜된 사이처럼 편하게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부드러운 관계가 잘 형성된 것처럼 착각(?)이 되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로 나오도록 '권면'을 하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종교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데, 타인이 다른 종교를 권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지나는 동안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인을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전도'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지 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권한다 (전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별로 활성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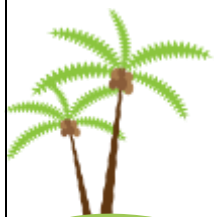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는 5월을 '전도의 달'로 정하고, 여러가지 불편함을 뛰어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현지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전도'에 집중하며 같이 기도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전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운데, '어린이 전도'가 어른 전도 행사에 가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을 '어린이 전도 주일'로, 그리고 5월 29일을 전교우가 참여하는 '총동원 전도 주일 (BOOM Service)'로 기도하며 기대 가운데 준비중입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통하여 디고스 예일 교회의 온 교우들이 불편함이 아닌 기쁨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 올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 4:3)**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익핏 지역의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하여
3. 총동원 전도 주일 예배 (BOOM Service)를 위하여
4.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5. 성령 충만, 안전, 건강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